



정읍시 시기동, 신규 통장 임명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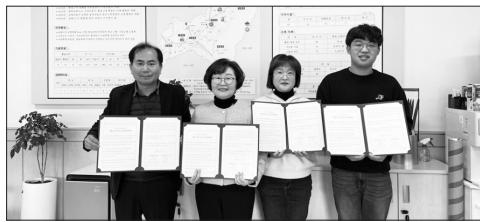
정읍시 시기동은 지난 10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새해 첫 통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임기를 시작하는 16명의 통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지난 1일자로 전보발령을 받은 직원을 소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 참석 안내, 2024년 노인복지비(바우처카드) 지원사업 등 주요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을 전달했다.

새롭게 통장협의회장에 선출된 김희상 통장은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통장협의회를 이끌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현희 통장은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힘쓰는 자리인 만큼 통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민 학회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며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기 좋은 시기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나눔 활성화 위한 재능기부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 수지면행정복지센터와 초록나무협동조합(대표 우혜진), 사회적협동조합 쓰임(대표 변수봉)은 지난 11일 지역나눔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록나무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쓰임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기구에 기구수리, 가구제작, 수납장등을 제작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협약으로 초록나무와 쓰임은 수지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양상자 지원, 두레사랑방과 고사발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입식테이블을 지원하고 LED 우체통 설치, 가구리사이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요촌동,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한기 어르신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1~2월 농한기를 맞아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찾아가 활발한 치매조기검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농한기를 이용해 실시되는 이번 검진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1차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하 판단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협약 병원에서 뇌 영상 활용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치매진단을 내리게 되며 진단과 감별검사 비용은 무료다.

또 치매가 아닌 경로인지장애로 진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1년 후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진단된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돌봄 지원, 배회감지기 지원, 인지자극 프로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주민사랑방 준공

복합문화모임공간으로 지역공동체 활력 공간 마련

진안군은 지난 12일 쇠퇴 된 원도심 기능 재생과 지역 자생역량 기반 조성 및 주민 공동체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우화2동 주민 사랑방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계현 안전환경국장, 광복원 진안읍장,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관계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주민사랑방의 준공을 축하했다.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11월 공모에 선정돼 총 168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2024년(4개년)까지 쇠퇴되고 있는 진안군 군상리 우화 1~3동 마을의 중심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거점시설로 우화 들판날락 화합센터, 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 우화 주민사랑방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소한 우화 주민사랑방은 기존 노후된 마을 회관을 철거하고, 복합문화모임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총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100㎡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해 12월에 준공됐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령특화 건강교실인 실버댄스, 웃음치료,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사용된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은 “우화 주민사랑방이 우화2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모이는 소통과 문화 활동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우화 들판날락 화합센터, 청춘 아지트리움 등의 남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박차를 기해 침체된 읍소재지의 도심 활력을 제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6개 마을 이장 임명식·이장회의 개최

진안군 부귀면(면장 조봉진)은 지난 11일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신년 새로운 다짐을 위한 2024년 첫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의원, 농협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마을 이장에 대한 임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조봉진 면장은 “그동안 이장님들께서 면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부귀면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청룡의 해를 맞아 선봉면, 유품면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신있는 면 행정을 펼치면서 부귀면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특히 “면소재지 진입로 정비, 이간 경관조명, 부귀면 대표 조형물 설치 등 환경정비를 할 것이며 금강유역환경청 및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신거식 마을 소재지 공터부지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부귀면에 유동 및 생활 인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한기 어르신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1~2월 농한기를 맞아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찾아가 활발한 치매조기검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농한기를 이용해 실시되는 이번 검진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직접 마을 경로당을 찾아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1차 치매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선별검사에서 인지하 판단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할 경우 협약 병원에서 뇌 영상 활용 등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치매진단을 내리게 되며 진단과 감별검사 비용은 무료다.

또 치매가 아닌 경로인지장애로 진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에 연계하고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1년 후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진단된 치매환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돌봄 지원, 배회감지기 지원, 인지자극 프로

그램 참여 및 인공지능 돌봄인형 서비스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농한기에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활力찬 지역사회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63-540-2745)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심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자지사 010-8845-9935

의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임실경찰서,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저지벌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신속한 판단 및 대응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수사관 및 최일선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제도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파출소 현장 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계 수사관들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숙지와 여성청소년계, 112 치안종합상황실, 수사(강력·지능), 지역경찰 등 관련 기능이 스토킹 신고 접수부터 수사과정 전반에 관한 대응방안과 사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각 단계별 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최규운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는 범죄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